

기고

시민 신고로 완성되는 소방 안전망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만드는 안전한 일상 화재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상당 부분은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불법행위에서 비롯된다. 비상구를 잠가두거나, 소화기 앞에 물건을 쌓아두고, 스프링클러 전원을 임의로 차단하는 행위는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위급한 순간에는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다. 이 제도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발견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이를 확인한 뒤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속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를 통해 안전을 완성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불법행위는 '습관'이 되고, 사고는 '순간'에 발생한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불법행위는 비상구와 피난통로 관리 소홀이다.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오늘만 막아두지"라는 생각이 쌓여 어느새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화재 발생이라는 단 한 번의 순간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과거 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야간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비상구 앞에 적치된 물건 때문에 대피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장 조사 결과 "연기 확산이 조금만 더 빨랐어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시설은 이전에 시민 신고로 비상구 관리 위반이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신고가 없었다면 위험은 그대로 방치됐을 것이다.

신고포상제는 처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신고포상제에 대해 일부에서는 '감시'나 '고발'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본질은 처벌이 아니다. 목적은 오직 예방이다. 불법행위를 조기에 발견해 바로잡고, 더 큰 사고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시민 신고를 계기로 현장 점검과 안전지도가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전통시장에서는 과거 시민 신고로 소화기 적치 불법행위가 시정된 이후, 실제 화재 발생 시 상인이 즉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한 번의 신고가 수많은 피해를 막은 셈이다.

시민이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본다 소방관이 모든 현장을 상시 점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시민은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위험을 발견한다. 출근길에 본 막힌 비상구, 장사를 준비하며 본 방화문 고정, 창고 한켠에 가려진 소화기. 이 모든 장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이다.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다. 119 또는 관할 소방서로 신고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조례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허위나 중복 신고는 제외되는 등 공정성도 함께 담보하고 있다.

한 건의 신고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한 가족의 일상을 지킬 수 있다. 시민의 용기 있는 신고가 곧 우리 모두의 안전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안전한 일상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이승빈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Table with 2 columns: 편집인 정길환, 편집국장 박선주. Includes contact info for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강성철 교수의 철학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철 철학티비', '강성철 문학티비' 운영중



철학자들의 우정-박지원과 박제가(4)

구제할 방도가 없다." 이 책을 정조 임금에게 바치면서 쓴 상소문에서도, 박제가 는 그가 바라본 조선 백성의 공핍상을 다 음과 같이 처절하게 묘사하고 있다. "산골의 백성들은 화전(火田, 개간되지 않은 땅이나 휴경지를 새로이 경작할 때, 불을 놓아 풀과 나무들을 태워버리고 농경에 이용하던 농법)을 일구고 나무를 하느라 열 손가락 모두 몽독하게 못이 박혀 있지 만, 입고 있는 옷이라고 해야 10년 묵은 헤진 솜옷에 불과합니다. 또한 집이라고 해봐야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리고서야 들어가는 움막에 지나지 않았습니 다. 방 안에는 늘 연기가 매개하고, 벽은 바르지도 않았습니 다. 먹는 것을 보면, 깨진 주

발(粥鉢, 볏쇠로 만든 밥그릇)에 담긴 밥과 간도 하지 않은 나물뿐입니다. 부엌에는 나무젓가락만 달랑 놓여있고, 아궁이 앞에는 질항아리(질흙으로 빚어서 구워 만든 항아리) 하나가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제가가 제시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업 진흥정책을 시행할 것, 둘째 소비의 기운을 북돋워 강하게 일으킬 것, 셋째 생산을 촉진할 것, 넷째 해상 무역(해상 운송수단, 즉 배 등을 이용하여 사람과 재화를 운송하는 행위)을 육성할 것, 다섯째 유통(流通,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하고 분배하는 일)의 효율성을

높일 것, 여섯째 수레나 배와 같은 유통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일곱째 도로망을 늘릴 것, 여덟째 선진적인 기술과 기계를 들여올 것, 아홉째 여러 가지 봉건제도를 개혁할 것 등이었다. 이밖에 그는 도량형(度量衡, 길이·부피·무게 및 이를 측정하는 자·되·저울 등)을 표준화하고, 벽돌을 사용하는 가옥구조로 개선하며, 각종 농기구를 보급할 것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박제가의 이용후생(利用厚生, 백성들의 실제 생활에 이롭게 쓰이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 사상은 박지원, 홍대용 등 북학파들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안은 당시 조선의 현실 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더욱이 박제가의 건의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태세였던 정조마저 사망함으로써 모든 시도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리하여 결국 박제가의 1801년 노론 벽파의 미움을 받아 유배형에 처해졌다. 2년 7개월간 귀양살이를 마친 박제는 고향으로 돌아왔고, 1805년 4월 25일 56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겨울철 화목보일러,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집니다"

진도소방서는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난방용 화목보일러 사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겨울철 화재 위험 요인 중 하나인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을 알려고자 한다.

화목보일러는 구조상 연료가 완전히 연소되기 전에 불씨가 남아 있을 수 있어, 관

리가 조금만 소홀해져도 주변 가연물에 쉽게 불이 옮겨붙을 위험이 있다. 또 실제로 매년 겨울철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사고들이다.

화목보일러 사용 시 다음과 같은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

첫째, 사용 전 점검하기다. 보일러와 연

통에 녹이 슬었거나 틈이 생기지 않았는지 한 번만 살펴봐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둘째, 연통 관리하기다. 그늘음은 금방 쌓이기 때문에 가끔씩 청소하고, 필요하면 수리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연통이 지나가는 부분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해 두면 더 안전하다.

셋째, 장작 투입 후 덮개 닫기다. 장작을

넣은 뒤에는 덮개를 꼭 닫아 불티가 밖으로 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넷째, 보일러 주변 정리하기다. 종이, 목재, 비닐 같은 가연물은 보일러 근처에 두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주변을 조금만 비워도 화재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다섯째, 제 안전하게 처리하기다. 걸보기엔 식은 것이라도 속에 불씨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재는 뚜껑 있는 금속통처럼 타지 않는 용기에 담아 안전하게 식혀야 한다.

진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노은서

오늘의 운세 2026년 1월 5일 월요일 (음력 11월 17일)

Grid of zodiac signs with corresponding horoscope text for each sign.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